

# 동성애와 문화

## 제 1회 동성애 문화의 이해 <퀴어문화축제>

### 1. 들어가며...

‘동성애’ ... 가깝고도 먼 단어이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행위 처벌 균형법 폐지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동성애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막연한 단어일 뿐이고, 이에 관한 여러 사회문제들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관심사 밖의 일일 때가 많다. 마치 내가 모르던 사이 교통체계와 법규가 모조리 바뀌어 누군가 말해주기 전에는 평소 익숙한 길도 우왕좌왕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성애 문화’는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고, 머지않아 나와 내 가족의 삶의 많은 가치를 뒤바꾸어 놓을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평범한 우리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모든 정신을 쏟을 때, 사회 한 칸에서는 ‘동성애자’ 수용을 위한 제도적 전환과 법률 제정을 위한 인권 투쟁, 내지는 사회운동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번 <CREDO> 매거진 발간을 위해, ‘동성애와 문화’라는 주제로 총 6회 분량의 기고를 요청받았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 논의가 심화될수록 ‘인권보도준칙’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동성애 또는 동성간 성관계에 관한 부정적 의사표현을 쉽사리 나타내기 어려운 ‘역차별’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동성애 문화가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와 그 이전의 관련 연구논문도 그 성격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최

근으로 올수록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구논문 일색이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경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 또는 동성간 성행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이 같은 사고적 간극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문화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 여과 없이 수용해야 옳은 것일까? 아니면 다수가 추구하는 사회적 규범의 가치에 입각하여 적절한 소통과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 필자는 이번 6회 분량의 기고를 통해, 이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 요소에 관해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기 원한다. 이 같은 다양한 채널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과 문제들이 민주적이고 건강하게 합의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본 1회분에서는 ‘동성애 문화의 이해,’ 그 첫 번째로 <퀴어문화축제>를 조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어서, 2회: ‘동성애 문화의 이해 <그들만의 삶과 공간>,’ 3회: ‘동성애와 언론, 미디어,’ 4회: ‘동성애와 공연문화,’ 5회: ‘동성애와 음악, 예술,’ 6회: ‘동성애와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제언>’ 이와 같은 순으로 ‘동성애와 문화’ 전반에 걸쳐 논하여 보고자 한다.

본문에 앞서, 혹시라도 이 글을 대하는 성소수자 분들께 먼저 깊은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동행해 본 경험도 없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없음을 미리 알리고 싶다. 다만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양한 언론 매체의 보도자료들과 관련 서적 그리고 연구논문 등의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을 기술하고 제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 2. 퀴어문화 확산의 장, (퀴어문화축제)

### ‘퀴어’의 의미

퀴어(queer)는 젠더(gender) 즉 성별과 관련된 의미로 규정할 수 있다. 본래 ‘이상한, 기이한’ 등의 뜻을 가진 ‘퀴어’는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할 때 쓰는 단어였으나 198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부정적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고,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회적 반감을 줄이고 오히려 약자의 이미지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를 담은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 같다. 동성애자는 세부적으로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x), 무성애자(asexual) 등으로 나뉜다. 게이, 레즈비언은 자신과 같은 성별에 끌리는 동성애자를 말하며, 바이섹슈얼은 양쪽 모두에게 끌리는 양성애자를 지칭한다. 트랜스젠더는 신체적으로는 남성 또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은 타고난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을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 인터섹스는 남성·여성으로 구분되는 특질과 다르게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으로 '간성'이라고 한다. 한편, 퀴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LGBT'가 있는데,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퀴어'라는 단어와 함께 동성애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참고)

### ‘동성애,’ ‘동성간 성관계’의 의미

동성애(Homosexuality)는 동성간의 정신적, 육체적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동성애는 동일한 생물학적 성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고자하는 욕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관행에 있어서 남성들간의 성적 관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고, 여성들 간의 성적 관계는 보통 레즈비언애(lesbianism)로 불린다.(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다만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시각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쉬운 예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른 것과 같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 인식 자체로는 인권의 범주 안에서 논하여질 수 있겠으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윤리와 성도덕, 성적 질환 등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벗어나서 인식되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동성간 성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성정체성만을 추구하는 게이나 레즈비언도 존재하며, 이와 반대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정신적 ‘사랑’ 없이 오직 육체적인 성적 쾌락만을 위해 ‘동성간 성행위’를 추구한다고 밝힌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동성간 성행위의 종류로는 남성간의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여성간 성행위인 ‘트리버디점(tribadism; 서로의 성기접촉),’ ‘스트랩온 딜도(strap-on dildo; 성인기구 사용),’ 그리고 남성간, 여성간 동성 성행위 모두에



해당되는 '구강성교,' '애닐링구스(Anilingus; 항문 구강성교)' 등이 있다. 동성간 성관계에 관한 실제 동성애자들의 여러 견해와 그에 따른 다양한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와 같이 '동성애'를 논할 때, 다양한 젠더의 형태와 성적 행위를 빼놓을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는 바로 이러한 젠더, 성적체성, 성적취향의 다양성을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립으로 사회적 인식의 보편화를 추구하고, 자신들만의 성적 행위와 성문화를 다양한 직, 간접적 형태로 홍보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동성애자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적 보장과 사회제도 전환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회 저항성격의 문화축제 혹은 문화시위의 일종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예산 또한 1회 행사 때 1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에는 1억 6천만원 정도로 확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광장 진출에 성공한 것이 동성애자 확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015년에 이어 2018년까지 4년 연속 서울광장을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열린 제19회 퀴어문화축제에는 주최측 추산 8만명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총 3만명의 참여인원 증가가 있었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한 이후 2018년까지 불과 3년 만에 총 5만명의 기하급수적인 인원 증가가 발생한 셈이다. 향후 5년 뒤 예상 참가인원에 대해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기에 무리가 있겠지만, 지난 3년간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면 그 인원은 서울에서의 단일 축제만으로 16만명 가까이 이르게 될 전망이다.

### 국내 <퀴어문화축제>의 발달과정

대한민국 최초의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8일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 SQCF)' 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학로거리에서 진행되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종로나 청계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홍대거리와 신촌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2015년, 서울시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서울광장 사용승인을 얻어냄으로써 대대적인 규모로 발전하기에 이르게 된다. 서울광장이 주는 시민 친화적 공간의 이점 때문인지,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게 되고 일반인, 학생, 행인들의 참가도 늘어 동성애 홍보효과의 화수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000년 제1회 퀴어문화축제 당시 퍼레이드 기준 참여인원은 주최측 추산 100명 정도였는데, 2015년 16회 축제에는 3만명이 참여해 인원이 크게 늘었다. 퀴어문

실제로 최근 8~9년 동안 퀴어문화축제는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2009년, 서울 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고 현재까지 서울축제와 시기를 달리하여 지속되고 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서로 다른 지역단위로 퀴어문화축제가 총 4번이나 열렸다. 대구에서 6월 24일 부스 행사 및 '자궁심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제9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고, 서울에서 7월 14일 개막식과 7월 15일 부스 행사 및 퍼레이드, 부산에서 9월 23일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그리고 제주에서 10월 28일에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2018년 4월 7일 제1회 '전주퀴어문화축제'가 합류하였으며, 인천과 광주에서 새롭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장소 사용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인천의 경우 지자체의 여러 우려 속에 사용신청이 반려되었고,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장소사용 허가가 보류 중에 있다. 만약 2018년에 인천과 광주에서 각각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된다면, 강원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 모든 대도시에서 '동성애 문화' 확산의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 3. <퀴어문화축제>의 특징과 여러 사회적 논란

‘성소수자 인권축제’인가, ‘공공장소 음란축제’인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7월 14일 밤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15일, 다양한 부스행사, 축하공연, 퍼레이드, 폐막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더해, 네덜란드의 예술가 4인이 암스텔담 역사박물관과 네덜란드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인 ‘COC’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예술 작품인 ‘스텔담 레인보우 드레스 서울 전시회’를 주한네덜란드대사관 후원으로 7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별관에서 열었고, 행사당일인 14일 이를 시청광장으로 옮겨 전시하였다. ‘암스텔담 레인보우 드레스’란,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해 구금 등의 처벌을 하는 전세계 80개국의 국기로 만든 대형 패션 작품이다. 이 드레스에 속한 나라들이 모두 레인보우로 바뀌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에서의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듯 ‘퀴어문화축제’의 개막은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호소하는 집회적 성격으로 시작된다. 특히, 개막 행사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비롯한 10여개 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 퀴어축제 개막을 공식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특히 2017년 행사 개막식에서는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역시 참석해 “성평등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듯, 성소수자 인권보장없는 인권완성은 허구”라고 주장하며 참가자의 환호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부스행사와 퍼레이드 장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보편적 가치 판단에 준거한 마땅한 권리 주장인지, 아니면 다수 세대가 가진 예절과 교육의 가치규범에 혼동과 무분별을 야기할 수 있는 극도의 민감한 사안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둘째 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부스행사에는 주한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13개국 대사관과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커뮤니티 등 105개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축제에서 처음 참여한 뒤 올해 두 번째로 부스를 차렸고 미국 대사관도 지난해에 이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다. 이렇듯 ‘인권’이란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는 축제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퀴어문화축제의 각종 부스들은 동성간 성관계를 조장하는 선정적인 콘텐츠 전시와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인상품 판매로 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알몸과 항문성교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미술품, 포스터, 화보 등의 게시와 남성의 성기를 실물 사이즈로 그대로 묘사한 ‘자x초’ 라블리우는 양초 제품, 여성의 성기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보x쿠키’ 제과 판매, 색칠 이벤트용 제품인 ‘보x 색칠책’ 등을 몇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외설스러운 단어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인권’이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떠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출입 가능한 성인물품샵에서나 판매할만한 자위기구들과 여성간 동성 성행위용 기구를 청소년도 출입가능한 시청광장 부스 판매대에 버젓이 진열한 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 다른 논란은 다수 참가자들의 복장이다. 물론 평범한 티셔츠 차림의 참가자가 더 많지만, 만나체에 가까운 속옷차림에 선정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참가자를 광장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여성 참가자들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가슴의 중요 부위만 가린 경우도 있고, 특히 긴장한 채구에 여성용 비키니를 착용한 여장 남성이 눈에 많이 띈다. 물론, 그들의 성적체성, 성적 지향에 따라 복장을 입는 것임으로 그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일부 남성 참가자의 복장 중 항문부분만 드러내어 진 팬티 한 장만 입은 채 축제를 활발하는 모습은, 곧장 ‘항문섹스’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 동성애자가 아닌 시민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축제 내내 서울광장 여기저기에서 동성간의 키스, 백허그, 애무 등 성행위 묘사에 가까운 신체접촉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를 지켜본 솔직한 심정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게 해달라는 정당한 자유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반사회, 무질서의 세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았다. 마음이 무거워지며 잠시나마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오후 4시 30분부터 대형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퍼레이드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와 종로 등을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km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50m 크기의 대형 레인보우 깃발이 등장하고 모터바이크 부대인 레인보우 라이더스를 필두로 여러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차량,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는 역시 그들 존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성정체성’과 ‘동성간 성행위’를 시민사회 안에 최대한 어필하고 있었다. 퍼레이드카 위의 출연자들은 각각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임을 단번에 알아 볼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올라, 현란한 노래와 춤을 통해 대중에게 그들만의 자유와 해방감을 표출하였다.

출연자들의 춤에는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의 동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퍼포먼스들이 과감하게 담겨있었다. 더욱이 퍼레이드 대열에 합류한 일부 참가자들은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On Sale! 항문섹스 파트너 찾습니다.” 등의 외설스럽고 음란한 문구의 피켓들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이 같은 외설적이고 음란한 피켓, 퍼포먼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거나 제재하는 경찰 또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무엇보다도 아직 성행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교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을 가지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아마도 그들의 외침과 퍼포먼스 속에서 수많은 호기심에 사로 잡혀 심장이 별똥거렸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와 성행위를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성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것은 커녕 부모님께 교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시기이다. 동성친구의 경우 편하게 모든 비밀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집에 왕래하는 것도 별 제약이 없다. 성적 환상과 호기심만으로 동성 성관계를 먼저 경험하기 쉬운 시기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자신의 첫 성경험을 ‘이성간 성관계’로 하든, ‘동성간 성관계’로 하든, 그것을 판단하고 간섭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차별’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동성 성관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문섹스는 ‘한 번’ 들여놓으면 평생 빠져나갈 수 없는 땃과 같다”라고 증언한다. 타고난 동성애자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동성애자가 된다는 말이다.(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은 이후 회차에서 더 논하기로 하겠다)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충분한 교육과 인격 수양을 거쳐 올바른 자아가 형성된 이후, 온전한 성인이 된 이후에 주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아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가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공공장소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아니겠는가?

‘평범한 다수,’ ‘평범을 거부하는 소수,’ 승자는 누구?

위와 같은 동성에 축제의 과도한 노출과 성적 행위 묘사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서울시민 82.9%는 해마다 계속되는 동성에 퀴어행사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공연음란 행위, 성인용품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사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과 음란공연도 자기표현이므로 ‘괜찮다’라고 대답한 서울시민은 11.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5.5%였다. 또한, “동성에 퀴어행사가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에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77%의 서울시민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17.8%만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5.2%였다. 그리고, “서울시가 동성에 퀴어축제 장소로 4년 연속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는 서울시민 67.0%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적절하다’는 답변은 24.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8.3%였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

반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73.9%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써, 우리사회 다수가 부모의 연합으로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생리학적 가족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이 같은 ‘선정성’ 논란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반응에 문제의식이나 개선의지가 있는 것일까? 퀴어문화축제 강명진 조직위원장은 서울대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선정성 논란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키울 수 있다는 질문에, “퀴어문화축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 축제에서 무료급식이나 사회봉사를 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을 들곤 하는데, 성소수자들이 사회에 도덕적이고 건전하다는 식으로 잘 보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가. 성소수자는 사회의 판단 이전에 존재한다. 노출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자기표현을 막아선 안 된다는 조직위 입장에서, 굳이 사회에 잘 보이기 위해 축제를 구성하진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다시 말해, 존재를 위해 도덕적으로 건전할 필요도 없고, 축제를 통해 사회에 잘 보일 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앞서 ‘인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필자는 ‘방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방종’의 의미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라고 썼다.

필자는 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다수가 원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진정한 ‘인권보호’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자의 자리는 매번 ‘평범을 거부하는 소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1조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8조 7에 보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에 내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다수 의견을 일체 귀담아 듣지 않는 서울시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김모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다. 이번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앞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성애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며 행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21만명이 서명해 답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13일 해당 청원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 관여할 수 없고 행사 당일 현장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각종 상황에 대비하겠다”고만 답해, 사실상 21만명 국민의 권리요구보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더 가치 있게 받아들였다.

동성애 사회는 이렇듯 ‘소수자 인권’이라는 기치 아래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국제단체의 지원까지 힘입어 사실상 약자의 이미지를 가진 ‘소수’가 아닌 그 어떤 국민의 의견도 ‘무마’시킬 수 있는 타협 불가능한 강한 세력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 동성애자들이 꿈꾸는 세상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동성애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 앞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정녕 성소수자는 사회에 잘 보이려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일까.. 그들은 세상의 도덕적 잣대 이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해결책도 없는 것일까. 설령, 이사회가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서적인 모든 수용을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그들의 꿈을 다 이루었다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퀴어운동이 멈추게 되는 그 끝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 아마도, 수십 년 아니 그 이상을 이어온 차별과 억압을 끝내기 위해서는, 끝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누구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떳떳하고 자유분방하게 동성간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날이 와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남녀가 아닌 다양한 젠더 분류로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며, 청소년 동성간에도 거리낌없이 교제를 하고, 동성결혼도 합법화되어 다양한 조합의 가족형태가 생겨나며, 군대 내에서도 연애와 성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머지않은 미래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할 때, 이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이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기관들에 대해 다음 회에 소개할 기회를 갖겠다.

올해도 퀴어문화축제가 이어지던 서울광장 인근에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주최측 추산 7천명이 참여한 이 반대집회로 인해, 경찰은 강화플라스틱 안전 펜스를 서울광장 주변에 설치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와 충돌을 방지하고자 4개 중대 300여명의 경비 병력을 투입했다. 양측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반대집회에서 ‘동성애 박멸!’ ‘청소년 에이즈가 넘쳐나는데 개돼지만도 못한 항문성교가 왜 말이나!’와 같은 혐오적이며 자극적인 구호들이 사용되기도 해 퀴어문화축제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혐오’ 표출을 통해서도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혐오’가 커져갈수록 ‘성소수자 보호법’의 필요성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선정적일 수 있는 이유일지 모른다. 그들을 결집시키는 원동력, 세상을 바꾸고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은 ‘인정’과 ‘수용’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혐오’인 것이다.

글을 맺으며 필자는 제언하기 원한다. 앞서

설문조사의 결과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권리주장과 민주적 문제 해결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문문에 답한 국민의 수 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슈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찬성,’ ‘반대’로 이분화된 감정적 판단에만 치우치지 말고, 동성애 이슈가 가져오게 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곳곳 더 많은 장소에서 세미나, 공청회, 연구포럼 등을 열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연대하고, 건강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목소리를 전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행동에 옮김에 있어서는 ‘경멸’이나 ‘혐오’의 자세를 버려야만 한다. 이는 또 다른 죄와 갈등을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를 비판할 온전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 합의되지 않은 성폭행과 성추행이 난무하는 이 어두운 사회에서 어찌보면 그들의 합의된 관계가 더 도덕적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우리는 당당하게 답을 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더 나은 가치와 안정, 그 견고한 틀 안에서 다수가 행복을 보장받는 사회, 나아가 편견과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다.

#### 한경훈 교수

한경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LA)에서 상업음악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BS에서 다수 프로그램음악감독을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방송음악가로도 활동 중이다.

